

視覺構成論에 의한 都市景觀의 解釋理論 및 技法**

梁 鈞 在*

目 次

- | | |
|---------------------|----------------------|
| I. 視知覺과 環境認知 | III. 視覺構成論과 都市景觀의 把握 |
| II. 視知覺 對象으로서의 都市景觀 | IV. 事例研究 |

I. 視知覺과 環境認知

가. 視知覺과 「이미지」 形成過程

人間을 포함한 모든 動物들은 各각기 感覺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感覺機能에 의존하여 生活을 영위한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視覺, 聽覺, 味覺, 嗅覺, 觸覺의 다섯가지 기본적인 感覺의 기능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視覺의 기능이다⁽¹⁾. 정상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눈을 감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게 되며, 이때에 그들은 무엇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느끼게 된다.

본다는 것은 단순한 生理作用으로써 網膜에 비친 像이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大腦에 연결된 신경조직을 따라 우리의 腦로 전달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지만, 지각된 모든것이 우리의 기억에 충실히 남아서 하나의 완성된 經驗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본다”는 것은 어떤 對象이 그냥 보여진다는 의미의 매우 受動的인 現象이다. 우리가 對象을 “知覺(perceive)”하고 일련의 “認知(conceive)” 과정을 거쳐 기억속에 그 對象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空間속을 움직여 다니며 그 對象을 찾아내어 만져보고, 썩질을 벗겨서 그것의 생김새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매우 積極的이며 體系的인 心理的 作用이다⁽²⁾.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助教授

† 本 研究는 1983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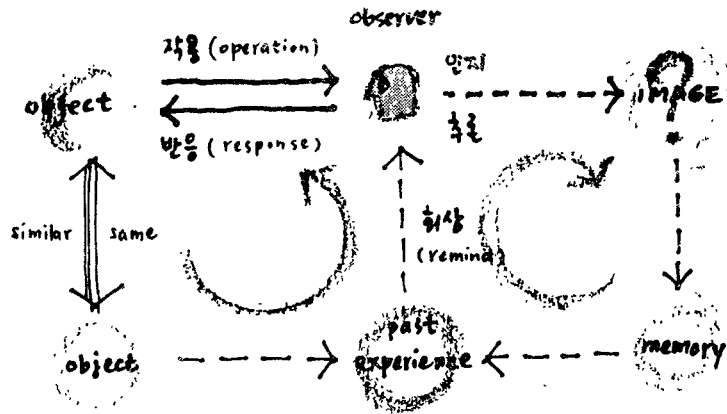
(1) Yi-Fu Tuan,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4, p. 6.

(2)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43.

視知覺의 過程에 대한 설명은 초기의 思想家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특히 「플라톤」은 觀察者와 對象사이를 이어주는 連結路가 확실히 존재하며 對象으로 부터 발산되는 빛이 이 連結路를 통하여 눈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精神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요즈음에 와서도 詩的表現에 종종 쓰여지고 있는데 T.S. Eliot 와 같은 사람은 그의 詩에서 “장미는 스스로가 꽃으로 보이게 하는 모습을 지녔기에 보이지 않는 눈 빛이 들어오도다”라고 적고 있다⁽³⁾.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며 경험을 하게 되는 物理的 環境의 實體를 파악하고 그 意味가 전달되어 하나의 체계화된 「이미지」로 형성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1〉 認知過程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對象이 존재해 있고 관찰자가 그 對象을 보게 될 때 對象은 관찰자에게 아주 원초적인 物理的 作用을 加하게 되고, 이에 대해 관찰자는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아 반응을 하게 된다. 이 단계를 知覺作用(visual operation)이라고 하며, 이 때에 관찰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 단계인 視覺作用(perception)으로 연결된다. 이것을 認知過程이라 하며 “思考(thought)”라고 일컫어지는 認知作用은 지각을 넘어선 知的過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知覺 그 자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心理學者들 중에는 感覺活動을 認知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思考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知覺속에서 이미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視知覺은 바로 視覺的 思考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⁴⁾. 따라서 認知에 대한 개념은 知覺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3) Ibid, p. 43.

(4) Rudolf Arnheim, *Visual Thinking*,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4, p. 14.

여기서 말하는 “認知”란 정보의 受容, 蓄積과 操作에 관련된 모든 知的 作用을 의미하며, 이러한 知的 作用으로는 感覺의 知覺, 記憶, 思考, 學習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認知의 過程을 能動的 探究, 選擇, 本質의 把握, 單純化, 抽象化, 分析과 綜合, 完成, 修正, 比較, 問題의 解結, 그리고 結合과 分離, 關係의 設定 등 일련의 作用을 말하며 이러한 作用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知的 動物들이 認知對象을 취급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⁵⁾. 이러한 認知過程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對象에 따라 실체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對象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對象의 「이미지」에 관한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의 다른 수준, 즉 感觸的 「이미지」와 認知的 「이미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前者의 경우 「이미지」 자체를 개념 이전의 未分化된 내용을 認識하기 위한 도구로서 현실세계에 속하지 않는, 또는 未分化된 現實을 知覺의 對象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道具로서 흔히 藝術家들이 藝術作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말한다⁽⁶⁾.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後者の 경우로서 對象을 인식하여 學習의 結果로서 기억속에 남은 對象의 認識象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관찰자와 대상간에 두가지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지게 되는데 對象은 自身の 명확성과 다른 對象과의 관련성을 관찰자에게 암시해 주고, 관찰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구성함으로써 그가 認知한 것에 意味를 부여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이미지」는 보여진 것을 일정한 테두리속에 국한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며, 「이미지」 자체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속에서 추출된 知覺要素들에 대해 계속 검증을 받게 된다⁽⁷⁾.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의 「이미지」는 관찰자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을 조작하는 계획가나 설계가들은 環境「이미지」를 형성하는 외적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서로 다른 環境이 어떠한 「이미지」 형성 과정을 거쳐서 자기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들의 나이나 性, 문화적 배경, 직업 또는 기질 등의 동일집단으로 분류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로부터 특정집단의 공통 「이미지」를 밝혀냄으로써 그들의 계획이나 설계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나. 環境認知的 實體와 景觀

이 세상에 存在하는 모든 것은 視覺의 對象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볼 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視覺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는 보여지는 모든 것을 知覺하고 그 實體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5) Ibid, p. 13.

(6) 瀨尾文彰, 意味의 環境論, 東京, 彰國社, 1981, p. 119.

(7)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1960, p. 6.

“본다”는 것은 對象의 어떤 두드러진 면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예컨대 하늘의 푸르름이나 백조의 목의 曲線, 사과와 둥근형태, 冊의 각진 모양 등을 파악한다. 즉 對象에 있어서 몇가지의 두드러진 形象은 知覺된 對象의 特性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종합된 樣式(pattern)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全體로서 對象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에도 적용되고,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특정한 部分들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樣式的 구성에 있어 개개인의 知覺은 그들의 관심분야나 상황, 또는 視點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對象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묘사나 「이미지」의 형성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知覺은 완전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心理學者들은 認知概念에 대한 基礎的 實驗을 통하여 對象把握의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知覺의 對象이 두드러진 構造的 形象의 파악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 物體의 構造的 形象의 파악은 어느사람에게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視知覺對象의 實體 파악과는 달리 環境認知에 있어서는 心理學的인 측면보다는 景觀으로서의 物理的環境, 즉 景觀의 背景이나 環境의 本質이 되는 形體의 기능을 결정해 주는 일종의 指標(index)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된다⁽⁹⁾.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人間의 環境에 대한 知覺의 本質이며, 역사적으로 어떤 物理的인 形體가 人間의 景觀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景觀의 視知覺은 心理的으로 어떤 景觀이 특수하다거나 독특하게 여겨지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現象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시 된다.

특히 기존의 都市環境이 景觀的으로 어떻게 評價되어져 왔으며, 이들 景觀들이 왜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소중히 여겨지고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기술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시도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의 결과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景觀 자체를 視覺的 認知對象이나 空間構造 등 별개의 영역으로 分化하여 이해하고자 하는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I. 視知覺 對象으로서의 都市景觀

가. 視覺的 經驗과 景觀

우리는 도시속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들로 부터 여러 가지의 情報을 얻게 된다. 都市속에 存在하는 모든 實體들은 바로 우리들의 知覺對象이 될 수 있고 그것들에 의해 都市景觀은 구성된다.

(8)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op. cit.,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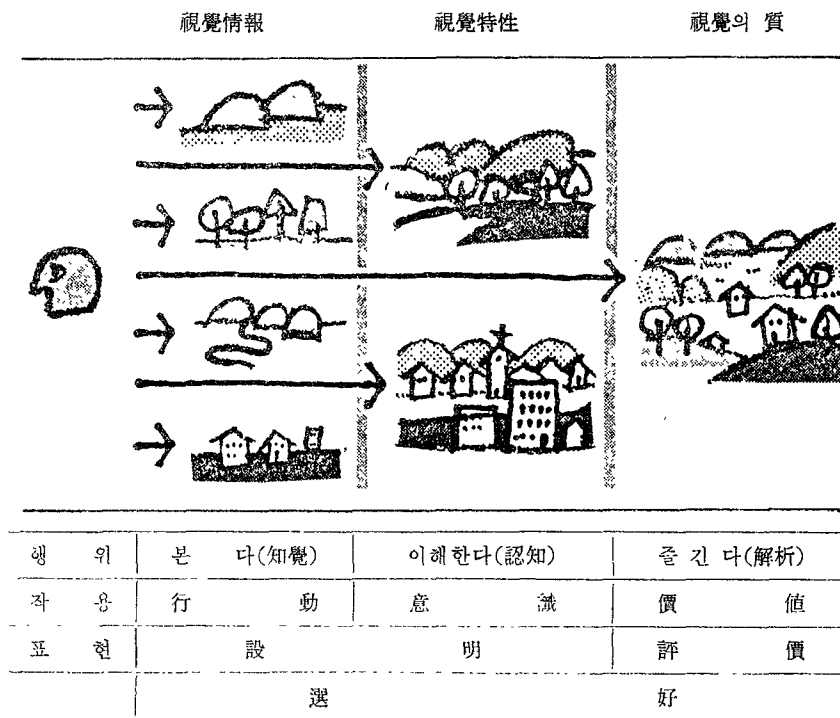
(9) Tadahiko Higuchi, *The Visual and Spatial Structure of Landscapes*, Cambridge, MIT Press, 1983, p. 5.

景觀이란 視覺에 의해 한정지어지며 마음에 의해 해석되어 진다. 景觀은 우리가 움직이는데 따라 계속 변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展景이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신은 景觀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것을 실질적인 景觀이라 할 수 있다⁽¹⁰⁾. Tuan 은 景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景觀이라고 불리워지는 實體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景觀의 實體는 여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서로가 어떤 관계속에서 場所의 性格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視覺의 對象은 구성요소들 하나 하나가 되기도 하며, 그것들이 모여 만드는 總體的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對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視覺情報⁽¹¹⁾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視知覺과 認知의 과정 속에서 어떤 場所가 갖는 視覺의 特性과 質에 관계하는 요소들은 <그림 2-1>과 같이 구성되어지며 이들은 모두가 景觀을 可視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視覺資源으로 부터 얻어진다.

우리가 景觀을 視覺的으로 經驗함에 있어서는 景觀의 實體, 一可視的인 景觀을 형성하고



<그림 2-1>

(10) D.W. Meinig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9, p. 3.

(11) 視覺情報(Visual Information); 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들의 部分이나 全體의 個別性, 즉 건물, 길, 나무, 자동차, 사람 등을 말한다.

있는 事物의 外觀(appearance), 즉, 視覺資原(visual resource)이 보여짐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對象을 知覺하고 認識함으로써 그 對象의 視覺的 質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視覺經驗의 과정은 최초로 관찰자가 場所의 構成要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로 부터 포괄적인 視覺情報(visual information)를 얻게 되며, 이렇게 얻어진 시각정보는 認知過程을 거쳐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되고 그 場所가 어떤 종류의 것이며 다른 場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視覺的 特性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찰자는 자신의 意識으로 對象을 파악함으로써 場所가 가진 외형적인, 즉 視覺構成要素들 만으로 이루어진 것에만 관심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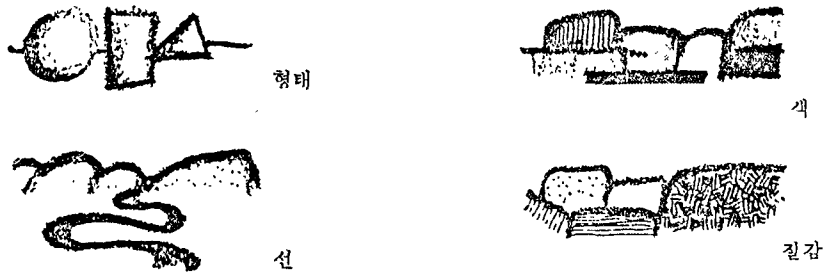
그러나 都市景觀의 해석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景觀의 質的 樣相을 파악하고 問題들을 綜合, 評價함으로써 景觀의 質에 대한 選好가 생겨나는데 이 과정에서는 관찰자의 社會, 文化的 背景에 따른 價値가 작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 場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나. 視覺樣式과 景觀의 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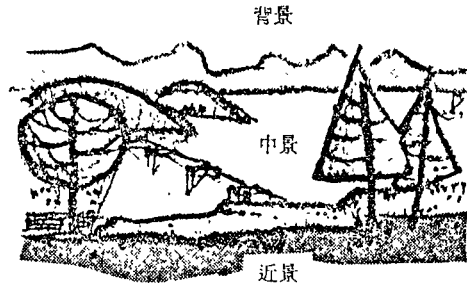
景觀은 어떤 특정한 視覺樣式을 형성하는 要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景觀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우선 視覺樣式(visual pattern)의 構成要素들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양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은 形態(form), 線(line), 色(color) 그리고 質感(texture)이다. 形態는 이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대상의 덩어리(mass)나 모양(shape)을 말한다. 線이란 기하학적으로 두 점을 연결했을 때나 두 개의 면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서는 對象의 외곽을 이루는 線(silhouette)이나 서로 다른 樣式 사이에서 생겨나는 外廓部(boundary)로서 視覺樣式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色(color)은 對象에 비춰지거나 투사된 빛의 量이나 質에 따른 價値(例; 밝다, 어둡다 등)를 말하며, 質感(texture)은 對象의 表面에 나타나는 視覺 또는 觸覺의인 特性으로 구성요소 중 景觀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이라 하겠다. 視覺樣式은 특히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構成要素의 知覺程度에 의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近景의 경우 4가지의 구성요소—형태, 선, 색, 질감—가 모두 파악되며 中景은 형태와 선 및 색, 遠景의 경우에는 주로 형태와 선 정도가 지각된다(그림 2-3).



<그림 2-2>



〈그림 2-3〉

이러한 시각양식의 구성요소들은 景觀의 理解에 가장 기본이 되며, 이들의 상관관계에 의해 視覺特性이 정해진다.

視覺特性은 優勢性(dominance), 規模(scale), 多樣性(diversity), 連續性(continuity)에 의해 결정되며, 視覺特性的 해석에 따라 視覺의 質이 評價된다. 視覺特性은 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여 하나의 특징적인 視覺樣式을 형성할때 그와 對比的인 景觀要素들과 비교되어 나타나는 視覺的 印象의 記憶度を 나타내는 “선명도”(vividness)와 自然景觀이나 人工景觀에 있어 視覺的 秩序(visual order)의 완전성이나 景觀이 視覺侵害(visual encroachment)로 부터 보존되는 정도를 가리키는 “完全性(intactness)”, 그리고 景觀要素들이 전체로서 調和될 수 있는 視覺樣式을 형성하는 “統一性(unity)”에 의해 視覺的 質(visual quality)은 결정된다.

이러한 視覺情報과 視覺特性 및 視覺的 質은 우리가 景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景觀을 評價하는데는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視覺選好(visual preferenc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그림 2-1).

III. 視覺構成論과 都市景觀의 把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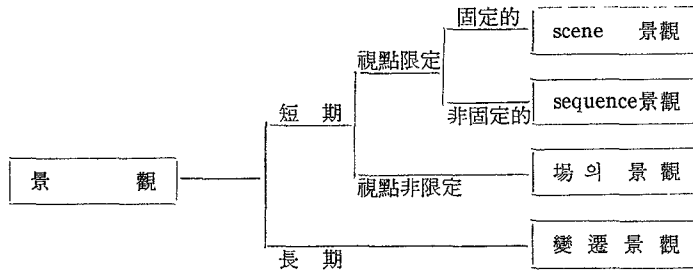
가. 視覺構成論과 景觀의 現象의 分類

景觀이라는 포괄적인 現象을 일단 個別要素로 분해하고, 분해된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전체를 再構成하려는 것이 바로 構成主義的인 사고방식이다⁽¹²⁾. 이것은 고정된 視點으로 부터 對象을 바라보는 경우를 景觀現象의 基本型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視點의 移動, 空間의 擴大, 時間의 경과 등이 더해져서 보다 포괄적인 현상이 성립한다고 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景觀을 論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파악의 관점이 있게 되는데 이는 實體論的 景觀과 意味論的 景觀을 말한다. 이 두단계의 景觀把握은 관찰자가 對象을 知覺하고 認知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前者의 경우 시각대상 자체의 景觀형성에 더

(12) 篠原 修, 新體系土木工學 59, 土木景觀計劃, 東京, 1982, p. 19.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後者は 그 景觀이 人間의 知覺의 次元을 넘어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對象으로 본다는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意味論의 景觀의 파악이 實體論의 인 파악과 마찬가지로, 분류된 각각의 景觀現象에 대해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3-1〉 景觀의 現象의 分類⁽¹³⁾

이러한 관점에서 景觀現象을 時間과 空間의 特性에 따라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 scene 景觀

觀光地나 都市의 전망대에 올라서서 “전망이 좋다”라든가 “경치가 좋다”라고 할 경우 그것은 고정적인 視點에서 얻을 수 있는 景觀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景觀을 scene 景觀이라고 하며, 이것은 고정적인 시점으로 부터의 투시도적, 즉 寫實的인 조망이고 시간적으로는 비교적 단시간의 현상이다.

• sequence 景觀

視點을 이동시키면서 차츰 변해가는 장면을 계기적으로 체험해 가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sequence 景觀이라고 한다. 시간적으로는 그리 길지 않고 對象 자체의 형상도 변화하지 않지만 景觀의 변화는 視點에 따라 달라진다. 人間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景觀은 거의가 sequence 景觀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그 변화가 현저한 경우, 또는 視點移動의 「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視線을 유도하려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의 미상 맥락을 갖게 된다.

• 場의 景觀

scene 이나 sequence 景觀은 視點의 위치나 그 이동양식(속도, 방향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비해 場의 景觀은 車窓에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삼림, 호수, 농가 등을 보고 “멋진 田園風景이다”라고 전체로서의 印象을 論할 경우나 “훌륭한 溪谷”, 또는 “서울의 都市景觀” 등으로 표현될 때를 가리키며, 이것은 한정된 視點으로 부터의 조망이 아니라 여러개의 불 특정 시점으로 부터의 조망을 합친, 어떤 일정 범위내에서의 조망의 총체를 의미한다.

(13) 上揭書, p. 20.

• 變遷景觀

長時間의 경과에 따라 보이는 對象 자체가 변해가는 景觀을 변천경관이라 하며 이는 視覺構成的 측면보다는 歷史的 景觀, 文化的 景觀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네가지의 現象은 모두 對象地의 景觀「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게 되며 그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장면의 강렬한 scence 景觀이 전체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場의 景觀을 지배하는 탁월한 對象의 존재가 景觀「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한다.

景觀現象에 대한 分類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景觀計劃에 있어서 操作의 方法의 研究를 위한 景觀의 理解를 높이고, 景觀의 分析的인 파악을 통해 景觀現象의 공통적 인식을 갖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나. 操作論的 立場에서의 景觀研究의 檢討

體驗되고 評價된 것으로서의 景觀은 實體로서의 物的 對象과 人間과의 사이에 視覺을 통한 空間的, 時間的 關係로써 나타난다. 景觀을 의도적으로 改造한다거나 保全한다고 하는 操作論的 立場에 있어서는 人間의 視點과 對象과의 關係를 규명하는 것이 기본과제이다. 視點과 對象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操作的 景觀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解析指標 또는 操作因子

景觀의 操作, 分析을 행할 때 취해야 할 要素, 또는 그들 要素들의 視點과의 關係, 要素들과 景觀과의 關係를 指標나 因子로써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19세기 독일의 건축가인 Hans Märten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그는 對象의 전체적인 美的 感銘은 視點의 눈이 닿을 수 있는 範圍와 距離에 관계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景觀의 解析에 있어서 指標設定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⁴⁾.

이와 비슷한 時期의 Camillo Sitte는 유럽의 廣場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광장을 구성하는 주변건물들의 높이와 視點으로 부터의 距離關係를 규명하여 空間의 閉鎖性을 空間心理學的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上原敬二는 視景觀의 要素를 다섯가지로 구분하였으며⁽¹⁵⁾, R.B. Litton, Jr.는 距離, 視點, 形態, 空間範域(spatial definition), 光, 線, 繼起(sequence) 등 여섯가지의 分析因子를 제안하였다⁽¹⁶⁾.

이들 要素들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指標는 樋口忠彦에 의해 총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

(14) Higuchi, op. cit., p. 3.

(15) 上原敬二의 다섯가지 구성요소는 視點, 視界, 方向, 主要形象, 距離이다.

(16) Higuchi, op. cit., p. 3.

있는데 그는 景觀의 解析指標를 8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⁷⁾.

• 景觀構成類型 및 構成手法

景觀要素의 조합에 따라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는 景觀構成의 典型(prototype)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치(vista), 展望 등의 개념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景觀類型(types of landscape)으로 총칭되고 있지만, 거기에 구성요소로서의 視點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¹⁸⁾. 이는, 視點과 對象을 모두 포함하는 景觀類型과 對象要素만으로 구성되는 景觀類型을 말하며, 이러한 분류는 景觀을 조작대상으로 취급할 때 그 조작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연구로는 Litton의 森林을 중심으로 하는 自然景觀의 Panoramic Landscape, Enclosed Landscape에 관한 것이 있으며, 景觀地理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都市景觀, 田園景觀, 交通景觀 등 土地利用의 내용을 기초로 한 景觀研究가 많이 되고 있다.

環境設計의 측면에서는 都市環境의 視景觀構成에 있어 관찰자와 대상간의 관계를 세가지 時間, 空間, 內容으로 구분하는 G. Cullen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첫째, 관찰자가 時間的 概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따라 나타나는 연속적인 景觀들의 상관관계속에서 景觀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과, 둘째, 관찰자가 주어진 環境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그에 따라 環境認識의 內容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場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둔 場所의 인식이 환경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셋째, 都市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內容들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도시를 전체적으로 짜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의 파악을 통하여 景觀의 本質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 對象景觀의 基本的 要素

이상의 분석에 대해 對象景觀의 構造를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要素를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그 내용은 극히 抽象度가 높은 意味論的 단계의 것으로 부터, 操作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추출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前者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Noberg-Schulz에 의한 Center-Place, Direction-Path, Area-Domain의 개념⁽²⁰⁾을 들 수 있겠다. Noberg-Schulz는 5개의 空間概念을 人間의 行動, 知覺, 認識 등의 諸측면을 통해 분류하고 環境에서 人間에게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空間으로 정의되는 實存의空間의 요소로서 위의 5가지의 空間概念을 들고 있다.

美國의 세계 都市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Path, Edge, District, Node,

(17) 1. Visibility or Invisibility 2. Distance 3. Angle of Incidence 4. Depth of Invisibility 5. Angle of Depression 6. Angle of Elevation 7. Depth 8. Light

(18) 篠原 修, 前掲書, p. 38.

(19) G. Cullen, *Townscape*, London, Van Nostrand Reinhold Co., 1961.

(20) C. Noberg-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Cambridge, MIT Press, 1968.

Landmark 등 다섯가지의 都市「이미지」구성요소를 밝혀낸 K. Lynch 는 그의 연구에서 이들 개개의 구성요소가 都市形態와 「이미지」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都市環境에 대한 인식에 의해 都市의 特性을 파악하고자 하였다⁽²¹⁾.

Lynch 의 연구는 視覺構成的 측면에서 보다는 관찰자의 環境認識과 「이미지」구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각각의 「이미지」구성요소들이 별개의 對象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속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속에서 특징적인 「패턴」을 구성함으로써 관찰자는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된다고 하였다.

日本の 건축가인 芦原義信은 空間의 限定性を 軸으로 한 P-Space, N-Space, PN-Space 를 「空間의 型」으로 설정하고, 空間의 本質은 그 閉鎖性에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여러개의 건물로 형성되는 外部空間에 있어 수직방향의 건물, 또는 벽과 그곳까지의 距離比(仰角)와 함께 수평방향의 面의 存在가 P-Space, N-Space 를 나누는 중요한 指標가 된다고 한다⁽²²⁾.

이들 研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鹽田敏志의 空間構造體-點, 線, 面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點, 線, 面을 操作對象空間의 규모에 따라 각기 해당되는 實體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며, 실제 대상의 조작에 있어서는 실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實體가 그에 상응하는 판단이 내려지는데는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고 한다⁽²³⁾.

이 개념을 실제 景觀分析에 적용한 예로서는 B. Litton 의 研究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을 중심으로 하는 景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景觀의 單位를 Waterscape, Setting Unit, Landscape Unit 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Point Element, Linear Element, Area Element, Mass Element 의 실례를 들어서 景觀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 視覺的 景觀把握과 景觀의 操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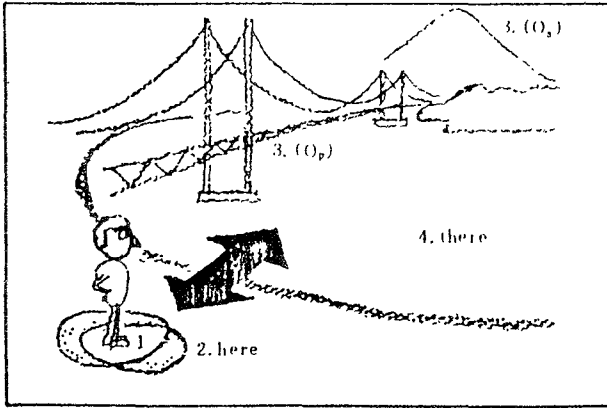
지금까지 視點과 對象間의 관계를 중심으로 景觀의 操作化를 위한 다양한 景觀論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景觀의 視覺的 파악과 景觀의 操作을 위한 기본적인 要素를 研究함으로써 視覺構成論的 景觀研究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景觀의 視覺的 把握은 景觀을 人間과 物的對象의 視覺關係에서 現象化하고 그 관계의 操作을 통해서 景觀자체를 人間에게 어떤 의미와 價値가 있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關係性의 操作은 空間的, 時間的인 物的 關係의 操作에 한정되며, 人間측의 조작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景觀이 人間과 物的對象의 視覺的 關係性에 대해 現象하고 있

(21) K. Lynch, op. cit.

(22) Yoshinobu Ashihara,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70.

(23) 土木工學大系, 景觀論, 東京, 彰國社, 1977, p. 41.



景觀構成要素

1. 視點 V
2. 視點場(L_{SH})
3. 主對象O(主對象 O_P, 副對象 O_S)
4. 對象場 L_{ST}

要素의 關係性

- | | |
|-------------------------------------|-----------------------|
| 1. V-L _{SH} | 2. V-O |
| 3. V-L _{ST} | 4. L _{SH} -O |
| 5. L _{SH} -L _{ST} | 6. O-L _{ST} |
| 7. O _P -O _S | |

〈그림 3-2〉 操作的 景觀把握⁽²⁴⁾

는 이상 人間과 對象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루어야 하며, 이 때 人間은 일반적인 視覺特性을 지닌 추상적인 人間으로, 즉 視點으로 다루어지게 된다⁽²⁵⁾. 그리고 視點에 대한 對象의 視覺的, 空間的 關係의 차이와 行動可能性에 의해 對象을 視點場과 對象場으로 나눈다. 이는 Cullen의 「여기(here)」와 「저기(there)」의 場所의 概念과 유사하며, 視點場은 일반적으로 限定性을 그 본질로 하는 空間이 되며 對象場은 조망, 또는 狹意의 景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Cullen은 場所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우리의 본능적이고 지속적인 習性때문에 주위 환경에 대한 위치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에 대한 일체감과 공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분을 갖게 한다. 우리의 내부에는 「여기」라는 의식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저기」라는 의식이 동시에 싹트고 있다. 우리는 이들중 한쪽만을 취할 수는 없다.”⁽²⁶⁾라고 함으로써 空間的 측면에서의 對象의 關係를 「여기—저기」의 關係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Noberg-Schulz도 의미론적 측면에서 場所가 지닌 의미와 장소들 상호간의 關係에 대해 人間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장소”로 불리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⁷⁾.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對象空間의 視點場이나 對象場의 구분은 意味論이나 體驗論의 의의와는 다른 操作論的 意識를 갖는다. 즉, 景觀을 목적으로 조작하려고 할 때 視點은 조작가능한 요소이지만 人間이 아닌 對象은 일반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경관때문에 자연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관때문에 토지이용 전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

(24) 篠原 修, 前掲書, p. 28.

(25) 土木工學大系, 前掲書, p. 47.

(26) Cullen, op. cit.

(27) C. Noberg-Schulz,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s, 1979, p. 6.

일한 對象이라 할지라도 그 操作可能性에 따라 그 단계가 서로 달라진다. 視點이 존재하는 場所, 즉 視點場은 조작성이 큰 동시에 人間の 景觀에 대한 評價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밝힌 세가지의 要素 중에서 對象場으로 부터 다시 그 對象場의 主題가 되는 要素를 主對象이라 하여 분리하도록 한다. 이들 景觀에 있어서 어떤 要素가 탁월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對象場에 나타나는 景觀構造를 결정하는 주된 實體가 존재하며 實體要素의 存在樣式이 景觀의 評價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²⁸⁾. 또한 操作論的 觀點에서 볼 때에도 景觀을 改造하려 할 때, 직접 조작가능한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직접 조작가능한 要素와 對象場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상과 같이 視覺的 景觀把握의 要素로서 視點, 視點場, 對象場, 主對象의 4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景觀의 操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들 要素間의 關係이며 이들 關係의 操作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景觀의 操作은 우선 人間の 操作과 對象의 操作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對象의 操作은 空間的 操作과 時間的 操作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對象의 操作은 어디까지나 視點과 關係를 맺고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操作的 景觀把握의 特徵은 景觀把握要素와 그들 요소간의 關係에 있으며, 이들의 조작을 통하여 景觀이라는 現象의 本質을 論理的이며 操作的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IV. 事例研究

大都市內, 비교적 다양한 景觀要素가 존재하는 地域인 서울시 江南區 瑞草洞, 속칭 제일 생명 뒷골목을 對象區域으로 事例研究를 실시하였다.

對象地 景觀에 대한 視覺構成的 측면에서의 분석은 앞에서 논의된 景觀의 視覺構成要素와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對象地에 적용해 봄으로써 對象地가 가진 景觀의 特性과 質을 밝혀보고자 한다.

1. Scene 景觀

우선 對象地에서 나타나고 있는 scene 景觀은 對象地가 서울의 典型的인 新興開發地이며 對象地의 中心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일종의 corridor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視點에서의 特徵的인 景觀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視點의 位置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이로 올렸을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한 江南일대의 都市景觀을 背景으로 하여 매우 혼잡스

(28) 土木工學大系, 前掲書, p. 49.

럽고 불규칙적인 신흥개발지의 인상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對象을 경험하게 되는 視點의 位置에서의 조망경관은 여기에 적용시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2. Sequence 景觀

視點의 移動에 따라 나타나는 景觀現象으로는 <그림 3-3>의 視點 ①로 부터 ②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단조로운 景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길 양측에 병렬해 있는 建物들의 규모(높이, 폭)가 거의 비슷하고 建物前面의 위치에 의해 구획된 가로의 폭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을 따라 점차 ②지점에 접근해 갈 때 視點의 主對象으로 건물 A가 부각되면서 우측으로 고층아파트群이 背景으로 나타난다. ②의 結節點으로부터 갑자기 視野가 트이며 視點 移動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視點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는 건물 A를 중심으로 좌우가 전혀 다른 要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속적인 景觀이 좌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②에서 ③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건물 B가 주변의 건물과 상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視覺要素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視點이 이동하는 방향과 저층부의 「지그재그」형의 건물 전면이 視線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건물의 상대적인 높이 때문에 視角의 범위에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③의 地點에서 다시 한번 視點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지점은 주변이 아직 미개발 상태의 空地로 남아있어 結節點으로서의 要素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물 C의 형태가 비교적 방향을 잘 설정해 주고 있다.

③에서 ④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뚜렷한 景觀의 現象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길 양측의 건물들에 의해 하나의 線的要素로서의 通路(path)를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④지점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왼쪽으로 뉴욕제과의 고층건물이 뚜렷한 對象으로 나타나고 主視點 방향과 수직으로 교차되는 도로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視野가 트이게 된다. ④地點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結節點이 되고는 있으나 하나의 特性있는 場所로서 파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네거리의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들이 절절점을 형성하기에는 그 규모가 도로의 폭과 어울리지 않고 좌측 부분의 대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視覺 효과라 하겠다.

④의 지점에서 ⑤의 지점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통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길 좌우에 형성된 건물의 조적이거나 규모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①→④에 이르는 Sequence 경관과 다른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⑤의 지점은 계속적인 Sequence의 경관이 끝이 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으로 느껴지기까지는 ⑤의 지점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景觀으로서의 시점을 고정시켜주는 요소가 없이, 테헤란路的 평면적인 요소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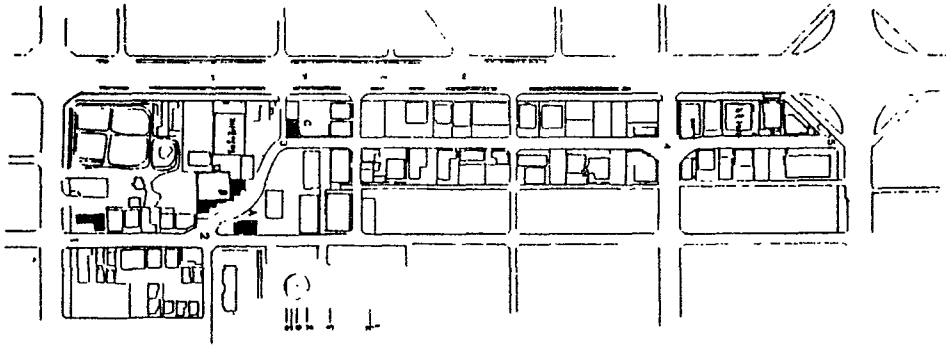
3. 主對象

이 지역에서 나타는 指標物(landmark)로서의 主對象은 우선 이 지역 일대를 제일생명 뒤라든가 뉴욕제과 부근이라 부르는 의미론적 경관「이미지」의 개념을 떠나서라도 물리적으로 제일생명이나 뉴욕제과 건물의 규모적 특성(높이, 규모, 색)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 두개의 건물은 모두 landmark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①지점의 주유소는 진입부분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②지점에서 건물 A는 시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있음으로 해서 Sequence 경관으로도 중요한 視覺對象이 되고 있다.

4. 場의 景觀

對象地가 갖는 場으로서의 景觀은 Scene景觀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져도 무방하다. 이는 大都市의 幹線道路 후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개 4~5層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공간으로 개발이 아직 채 완료되지 않아 난잡하고 불안정한 街路景觀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그림 4-1〉

參 考 文 獻

1. Arnheim, Rudolf,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2. Arnheim, Rudolf, *Visual Think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3. Ashihara, Yoshinobu,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70.
4. Cullen, G., *Townscape*, London, Van Nostrand Reinhold Co., 1961.
5. Higuchi, Tadahiko, *The Visual and Spatial Structure of Landscapes*, Cambridge, MIT

- Press, 1983.
6.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1960.
 7. Meinig, D.W.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9.
 8. Noberg-Schulz, C., *Intentions in Architecture*, Cambridge, MIT Press, 1968.
 9. Noberg-Schulz, C.,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s, 1979.
 10. Tuan, Yi-Fu,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4.
 11. 瀨尾文彰, 意味の環境論, 東京, 彰國社, 1981.
 12. 篠原 修, 新體系土木工學 59, 土木景觀計劃, 東京, 1982.
 13. 土木工學大系, 景觀論, 東京, 彰國社, 1977.